



안전한 일터 모두의 행복

2025 산업재해 예방
유공자 우수사례집

안전현장의 영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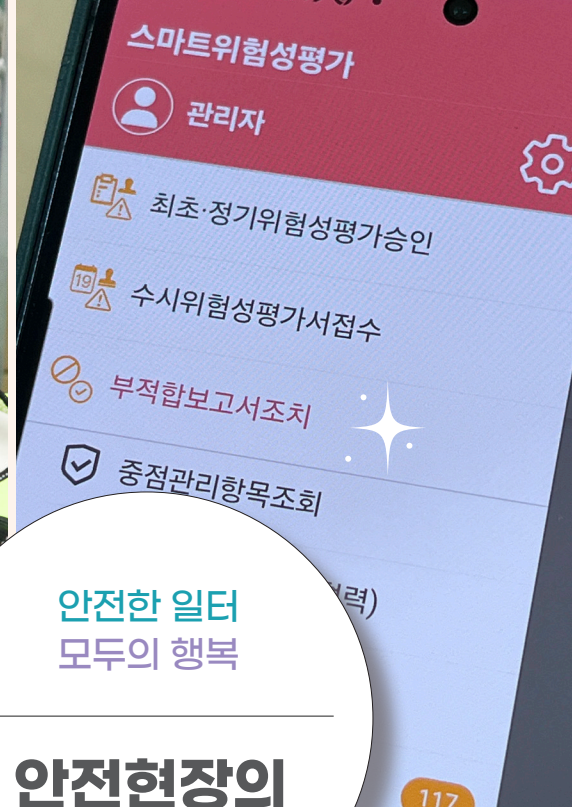
안전한 일터 모두의 행복

2025 산업재해 예방
유공자 우수사례집

안전현장의 영웅들







안전한 일터
모두의 행복

**안전현장의
영웅들**



발행번호: 2026 호

확인

발행일

발행처

안전지적서

대상자

소속

성명

발행번호

작성일

작성일자

작성일자

위반사항

□ 보호구 미착용

□ 안전장치 해지

□ 보행 중 휴대폰 사용

□ 안전수칙 위반

□ 기타 ()

발생장소

귀하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본 지적서를 (/) 회 발부 되었습니다. 해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실천과 소통으로 만든 안전문화 혁신 8

동탑훈장 우 종 선 생산지원부문장_삼양식품(주)

데이터로 살피고, 시스템으로 지킨다 12

철탑훈장 양 대 석 팀장_㈜경동나비엔 EHS기획팀

1% 지시, 99% 확인! 실천으로 증명한 산업재해 예방 16

석탑훈장 서 진 석 팀장_㈜신성건설 안전보건혁신팀



화재 극복 넘어 안전문화 선도기업으로 도약하다 22

이 정 도 공장장_㈜비츠로셀

현장이 바꾼 문화, 모두가 만든 안전한 일상 26

방 창 수 팀장_LG이노텍(주) 구미사업장 광학솔루션구미안전환경팀

빈틈없는 안전관리로 우리 사업장은 오늘도 안전 30

이 창 익 생산본부장_㈜선양소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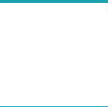
고위험 작업 속 현장 지킨 독심의 리더십	35
이 학 문 팀장_OCI(주) 익산공장 SHE팀	
작업 전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속도 조절의 달인	36
사 중 식 주임_㈜현대엘앤씨 칸스톤P&D팀	
스마트 기술에 협력과 배려를 더해 안전을 지킨다	37
임 병 석 부장_우미건설(주) 김포북변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꾸준한 투자·실천으로 안전표준을 완성하다	38
심 재 범 팀장_넥센타이어(주) SHE기획팀	
산재예방의 열쇠는 경영진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39
황 순 용 대표이사_평화산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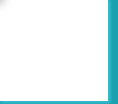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안전’에서 찾는다	41
장 상 무 공장장_한화솔루션(주) 울산사업장	
안전은 습관으로, 예방은 문화로	42
신 석 호 매니저_엘에스일렉트릭(주) 청주사업장 안전환경팀	
따뜻한 감성으로 만든 안전한 일터	43
김 창 곤 안전관리자_HL D&I 한라 안전보건팀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살핀다	44
김 장 수 실장_㈜벡스코 안전지원실	
산업용로봇 제조공정의 안전기준 만들기	45
이 중 남 부장_(사)대한산업안전협회 인증부	
안전의 시작은 위험을 ‘보는 것’, ‘아는 것’	46
문 병 두 실장_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원	
현장에서 답을 찾은 작업환경측정의 살아있는 전문가	47
이 동 학 대표_경기산업보건센터(주)	



.....	48
-------	----





안전은 조직에서 태어나고
실천으로 완성된다



실천과 소통으로 만든 안전문화 혁신



우 종 선 생산지원부문장_삼양식품(주)



불닭 브랜드로 K-food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삼양식품의 우종선 부문장은 독창적인 제조현장 종합 관리시스템인 CS(Comfort & Safety) 활동을 통해 ‘현장위생, 위험제거, 정리정돈’을 정착시키며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왔다. ‘안전관리는 규정 준수를 넘어 일상에 뿌리내린 문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신념으로 산재예방 활동에 전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안전은 조직에서 태어나고 실천으로 완성된다

“안전관리를 열심히 하는데도 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가 뭘까?”가 늘 고민이었어요. 그러다 ‘결국은 사람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죠. 작업자들의 불안정한 행동, 불안정한 기계설비, 불충분한 안전교육, 의례적인 위험성평가... 이 모든 걸 해결하려면 좀 더 혁신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95년 입사 후 2001년부터 관리팀장으로 일해 온 우종선 부문장은, 관리부서 직원이 안전업무를 겸직하는 상태로는 산재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7년, 관리팀에 속해 있던 안전관리 조직을 ‘안전환경팀’으로 분리하고, 기존 겸직 인력 2명에서 전담 인력 16명으로, 관리감독자도 8명에서 52명으로 확대하여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했다.

우 부문장은 삼양식품만의 독창적 제조현장 종합관리시스템인 CS(Comfort & Safety) 활동을 통해 ‘현장위생’, ‘위험제거’, ‘정리정돈’ 3원칙을 정례화하고 안전환경팀의 기능과 역할을 고도화했다. 주야간 안전패트rollers를 운영하며 위험기계, 미끄러운 바닥, 화학물질 노출, 고온 환경 등 불안정한 작업환경을 개선해 나갔다.

특히 ‘끼임재해근절 TF’ 운영은 안전사고 저감에 큰 역할을 했다. 식품제조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혼합기의 위험성평가를 통해 기계가 정지해도 임펠러가 회전하는 현상을 발견했고, 회전정지 타이밍에 맞춰 덮개가 열리는 타이머 락, 안전망, 시건장치 등 3중 안전장치를 설치했다. TF 운영을 통해 115건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했고, 정기 위험성평가를 통해 3년간 총 1,170건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했다.

‘모든 근로자가 출근한 모습 그대로 퇴근할 수 있는 근로환경 만들기’를 모토로 하는 우 부문장은 특히 신입 사원을 주목했다. 안전규정이 몸에 배지 않은 데다 기계 작동이 미숙한 탓에 갓 입사했을 때 산재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끼임사고 예방, 작업안전표준, LOTO)을 실시하고 명찰, 모자 색상을 구분해 안전패트rollers가 신입사원의 불안정한 행동을 발견하는 즉시 코칭을 할 수 있게 했다.



안전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안전환경팀의 현장점검 모습



색상으로 구분된 모자와 명찰을 착용한 신입사원

모든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예전에는 ‘빨리빨리’가 중요한 생존 전략이었고, 1초라도 늦어지면 생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안전보단 생산성이 우선이었죠. 하지만 제대로 된 안전관리는 불필요한 사고를 줄이고 작업중단을 최소화해 오히려 생산성을 높입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수익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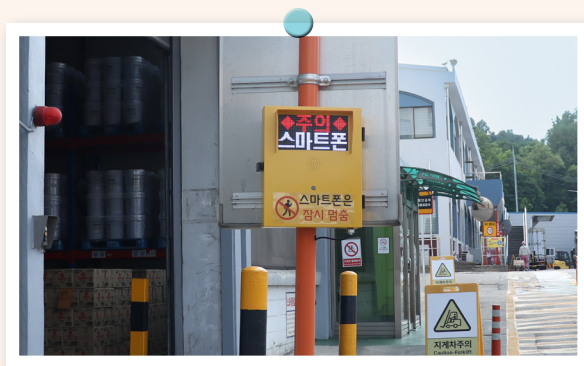
우 부문장은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인을 꼼꼼히 찾아내 개선했다.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 지점에 덮개를 설치하고, 입구와 출구 사이 개구부와 포장기 위험 지점 간 거리가 너무 가까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구와 출구를 터널형 구조로 바꿔 손이 위험지점에 닿지 않도록 조치했다.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누출감지 문자알림 시스템’을 도입하고, 80데시벨 이상(법적 기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에는 귀마개 착용을 의무화했다. 손목·허리 통증을 줄이기 위한 보호대 지급, 강원근로자건강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스트레칭 프로그램 운영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 안전교육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주 월요일은 ‘안전보건교육의 날’로 지정해 시청각교육을 포함한 집체교육을 운영 중이다. 안전환경팀 직원들은 ‘삼양과수꾼’ 활동으로 안전 수칙 위반 시 고지서를 발부하고, 산재예방 정보를 담은 월간 안전리포트도 발간하고 있다.



‘끼임’ 위험 제거를 위해 현장점검 중인 CS 활동



공장 내 보행로에 설치된 스마트폰 사용 제한 안내판

삼양식품(주)의 산재예방 따라잡기

- ◆ ‘끼임재해근절 TF’ 운영으로 유해위험요인 115건 개선
- ◆ ‘유해화학물질 누출 감지 문자알림 시스템’ 등 위험감지체계 강화
- ◆ 연 2회 위험성평가로 3년간 유해·위험요인 1,170건 개선
- ◆ 스마트폰으로 위험요인 제·포상하는 ‘안전제안제도’ 운영



『 똑똑하게 제안하고 함께 개선해 나가는 안전문화

“사고는 작은 위험신호를 무시할 때 발생합니다. 작업 중 이상하거나 불편한 점이 있다면 ‘괜찮겠지’ 대신, ‘이상하면 말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편견 없이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스마트 안전보건시스템’이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자신이 발굴한 위험요인을 손쉽게 보고하고, 개선안도 건의하는 ‘안전제안제도’를 운영하며 포상하고 있다. 부서별 연간 안전활동 실적을 점수화하여 포상하는 ‘자율안전활동평가제도’로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우 부문장은 협력사의 자기규율예방체계 구축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2022년 9개 협력사와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A등급을 받았고, 2023년에는 대·중·소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들의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도왔다. 또한 자사 제품인 별뿔빠이 멀티팩에 ‘별뿔빠이와 함께하는 안전한 하루’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2025년에는 재해율 감축을 위해 안전작업표준 미준수, 기계·기구의 오·조작, 안전장치 해제, 불안정한 작업자세 및 보호구 미착用に 대해 반복교육과 행동중심 교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유공자 선정은 안전을 위해 응축된 땀방울을 흘려 준 안전환경팀원들과 모든 임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산재예방은 경중이나 우선순위를 따지기보다는 ‘내가 먼저’라는 책임의식과 ‘우리가 함께’라는 연대의식을 몸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신념이 인정받은 것 같아서 보람을 느낍니다.”



안전관리는 일상이자 책임



데이터로 살피고, 시스템으로 지킨다



양 대 석 팀장 (주)경동나비엔 EHS기획팀



경동나비엔은 연간 200만 대 이상의 보일러 및 온수기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세계 보일러 및 온수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앞선 기술만큼 선진화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생산 사업장 3곳, 사무·연구소 2곳 모두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양대석 팀장은 입사 때부터 31년간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맡아 온 베테랑이다. 남다른 추진력으로 과감한 시설 투자를 이끌면서 본사 및 파트너사를 아우르는 산재예방 체계를 구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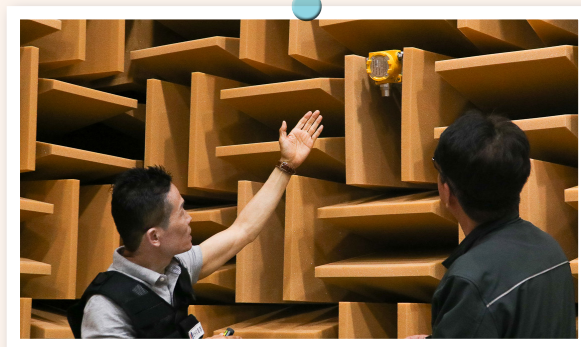
디지털 시스템으로 안전을 표준화하다

경동나비엔의 작업 현장은 복잡한 기계설비 운용, 밀폐공간 작업, 물류 등 다양한 공정 속에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기술 혁신’ 못지않게 ‘안전관리 선진화’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양대석 팀장이 이끄는 경동나비엔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EHS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출발한다. ‘EHS’는 환경(Environment), 보건(Health), 안전(Safety)을 하나로 통합한 디지털 전산 시스템이다.

“안전관리의 모든 과정을 정량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법령이나 규정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정별 위험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는 방식이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사전 경고, 실시간 조치, 사후 개선까지 전 주기에 걸쳐 안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컨테이너 상자 모니터링 CCTV, 지게차 충돌방지시스템, 밀폐공간 화재 감지장치, 송기마스크, 응급차량 확보 등 안전보건 설비 개선에도 적극 투자했다. 이처럼 기술, 시스템, 장비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경동나비엔의 산재예방 활동 수준은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

“EHS팀은 정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시스템을 연계해서 본사와 협력사를 아우르는 안전보건 관리를 수행하고 있어요. 수치를 활용하니 개선 효과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신뢰도 높은 사전 예측과 대응이 가능해져서 재해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체크 중인 밀폐공간 화재 감지장치



공장 출입 전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 의무 안내 표지판

화재도, 설비도, 화학물질도 ‘선제 대응’

경동나비엔의 주요 제품인 보일러는 고온의 열을 다루는 만큼 화재 위험이 큰 공정이 많다. 이를 고려해 EHS 시스템과 연동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종합관제실에는 전담인력이 24시간 상주하며, 감시카메라와 경보장치, 자동 알림 시스템 등을 통해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 이상 징후가 감지될 경우, 담당자뿐 아니라 대표이사에게도 자동으로 알림 메시지가 전송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양대석 팀장이 주도한 또 하나의 핵심 시스템은 ‘제조설비 사전안전성 종합평가 시스템’이다. 신규 도입 또는 변경되는 설비는 도면 설계단계부터 안전·보건·환경 측면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받는다. 경동나비엔은 관련 법규보다 더 엄격한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200여 종의 표준 안전사양서를 마련해 이를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 이후 설치와 시운전 단계에서도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기계, 전기, 화학 등 다각적인 위험요소를 점검해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제거한다.

2023년부터는 ‘화학물질 전산관리 시스템’도 운영을 시작했다. 신규 화학물질을 도입할 경우, 도입 전 단계에서 유해성을 검토해 위험을 원천 차단하며, 유해·위험작업은 반드시 사전 허가된 업체에 한해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제를 병행해 관리하고 있다.

“사전 안전성 평가는 설비 도입 전부터 위험요인을 인식하고 제거해서 애초부터 작업의 위험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불필요한 안전관리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고요. ‘유해·위험작업 허가제도’도 외부 공사업체의 안전성을 미리 확보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이에요. 작업 전에 교육이수 여부 확인, 최초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전 허가된 업체만 유해·위험작업을 맡기고 있습니다.”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이상 징후 시 자동 알림을 전송하는 관제 시스템



(좌) 응급상황 비상벨 및 지게차 속도제한 표지판
(우) 위급상황 비상벨(안전관리자에게 자동 SMS 발송)

(주)경동나비엔의 산재예방 따라잡기

- ◆ ‘EHS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법규 준수 및 위험요인 실시간 관리
- ◆ 지게차 충돌방지·밀폐공간 화재감지장치 등 스마트 안전설비에 적극 투자
- ◆ ‘제조설비 사전안전성 평가 시스템’으로 설계 단계부터 잠재 위험 차단
- ◆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근로자 신체·정신 건강까지 전방위 지원



몸도 마음도 건강한 일터 만들기

경동나비엔에는 본사 직원 외에도 12개 협력업체 800여 명을 포함해 총 1,6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양대석 팀장은 협력업체도 본사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보건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보건 컨설팅을 지원하고, EHS 시스템과 연동하여 분기별 이행사항 점검 및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대상 퀴즈대회인 ‘경동 골든벨’, ‘안전의식 결의대회’ 등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 문화를 확산시켰으며, ‘슬기로운 안전생활 가이드북’을 제작해 전 직원에게 배포했다. QR코드를 활용한 의견 청취 시스템도 운영해 현장 의견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로 삼고 있다. 또한 경동나비엔 전 직원이라면 누구나 매주 7만 보 걷기대회에 참가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기초 체력도 측정받는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아차사고 경험자 트라우마 치료, 직무 스트레스 관리, 신입사원을 위한 정신건강지원 프로그램(EAP) 등 몸과 마음을 돌보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회사 내에서 양대석 팀장의 별명은 ‘하루 25시간’이다. 하루 안에 끝내지 못할 일도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어 다 해내는 모습을 보고 직원들이 붙여 준 것이다. 그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 그런데도 아직도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고도화되는 미션을 선제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새로운 위험에 직면했을 때 대응할 원동력이 부족해집니다. 경동나비엔은 신공장 건설과 기존 공장 통합을 앞두고 있는데,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통해 조기에 안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동나비엔**

안전보건 최우선 경영



1% 지시, 99% 확인!

실천으로 증명한

산업재해 예방



서진석 팀장 (주)신성건설 안전보건혁신팀



신성건설의 서진석 팀장은 27년간 건설현장을 누비며 현장에 꼭 필요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온 전문가다. 형식적인 안전관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장비접근 경보 시스템, 추락방지 캠페인, 스마트 위험성평가 시스템 도입 등 현장 맞춤형 개선활동을 이끌었다. ‘안전은 실천’이라는 철학 아래 무재해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현장 속 작은 변화가 만든 무재해 기록

안전관리는 구호만 외쳐서는 안 되며,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어떤 규범이나 지시도 무용지물이다. 서진석 팀장은 지난 20년간 건설 현장을 누비며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위험요인을 제거해 왔다. 특히 2010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진행된 서천~보령(제3공구) 도로 건설공사는 약 8년 동안 단 한 건의 중대재해 없이 준공됐다. 당시 설계상 보강토 옹벽에 작업발판 설치가 어려웠지만, 위험을 예견한 서 팀장은 설계를 변경해 가설비계에 브래킷을 활용한 발판을 설치하고, 옹벽 상부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네트를 추가했다.

“현장 순찰 중 정리정돈이 안 된 작업장을 발견했는데, 금방 마무리될 것 같아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결국 자재에 걸려 근로자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그때부터 항상 ‘1% 지시, 99% 확인’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는 100%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면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다시 확인하고, 이후에도 또 확인하면서 불안정한 상태나 행동을 차단합니다.”

서 팀장은 수시로 현장을 돌며 작은 위험 신호도 놓치지 않고 실질적인 조치를 실행에 옮겨왔다. 대표적인 예가 ‘장비접근 경보 스마트 시스템’의 도입이다. 이는 장비와 근로자 간 협착 및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 거리를 실시간 감지하고 자동 경고음을 발생시키는 시스템이다. 또한 레미콘 타설 시에는 차량 협착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 스톱퍼를 설치해 차량이 정해진 위치 이상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시야가 제한된 구간에는 반사경도 부착했다. 교량공사에 자주 사용되는 워킹타워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무단 진입이나 위험한 사용을 방지했다.

서 팀장이 이끄는 안전보건혁신팀은 일별 현장 TBM 활동 모니터링, 월별 안전활동 보고, 반기별 본사 차원의 현장점검을 통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안전교육 자료, 서식, 타사 사고사례, 비상상황 시나리오 등을 현장에 배포하며 체계적인 교육도 병행 중이다. 본사 안전관리자 자격으로 반기마다 전국 현장을 순회하며 안전강평과 교육을 통해 빈틈없는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가설비계에 브래킷을 활용한 발판을 설치한 모습



전국 현장을 순회하며 진행하는 안전체험 및 교육현장

경각심을 행동으로 바꾸는 안전 캠페인

“건설현장에서는 추락, 낙하, 전도 등의 재해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추락재해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추락방지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뤄진 뒤에야 작업을 시작하게 하고, 점검 시에도 이를 중점 항목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추락재해 예방 3GO 캠페인’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안전시설 설치하GO, 보호구 착용하GO, 안전대 걸GO’ 세 가지 실천 항목을 모두 지켜야만 작업이 시작된다. 이외에도 주요 지적 사항 및 재해사례를 심층분석하여 ‘중대재해 제로를 위한 5대 안전 물’인 ① 안전시설물 설치 확인 ② 추락방지 시설 확인 ③ 안전시설 임의해체 금지 ④ 위험지역 출입 통제 ⑤ 보호구 착용 확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주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의 제안으로 시작된 ‘질문형 현수막’이 현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어요. ‘오늘 작업에 사용할 기계·장비는 무엇이고, 위험요인은 알고 있습니까?’, ‘작업 시 불편하다고 목숨과 바꾸시겠습니까?’ 같은 문구들을 현수막으로 게시하고, TBM 시에도 활용하면서 근로자들이 스스로 답을 떠올리고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진행 중인 ‘추락재해 예방 3GO 캠페인’
(안전시설 설치, 보호구 착용, 안전대 걸기 등)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게시한 질문형 현수막

(주)신성건설의 산재예방 따라잡기

- ◆ ‘장비접근 경보 스마트 시스템’ 도입으로 장비 협착·충돌사고 예방
- ◆ ‘추락재해예방 3GO 캠페인’ 실시로 작업 전 안전수칙 이행 철저
- ◆ ‘스마트 위험성평가 시스템’ 운영으로 공정별 체계적인 위험관리
- ◆ 본사·현장 간 소통 강화 및 노사협의체를 통한 실질적 위험요인 개선



이러한 캠페인들이 현장에 안착하려면, 단순한 지시를 넘어 위험을 예측·점검할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스마트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도입했다. 근로자들은 모바일과 PC를 통해 작업공종별 위험요인, 재해형태, 감소대책을 조회하고, 평가·회의·순회점검·아차사고 사례 등은 본사와 현장, 협력업체가 함께 통합관리한다. 평가항목 자동 연동, 실시간 정보 공유, 협력업체의 자율 참여로 반복 위험에 선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현장 너머 지역사회까지 이어지는 안전 철학

서진석 팀장은 2023년부터 전주지역 건설안전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안전보건협의회 간담회, 회원사 현장견학 등을 통해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 안전기술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그 결과, 2023~2024년 협의회 소속 회원사 모두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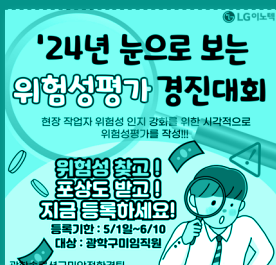
서진석 팀장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첫발을 내디딘 지 어느덧 27여 년이 넘었다. 근로자 재해로 인해 눈물 흘린 순간도 많았지만, 그럴수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초심을 지키며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부지런히 현장을 누벼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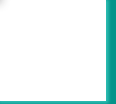
“근로자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공정을 정확히 맞추고 튼튼하게 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무사히 퇴근하는 거라고요. 이제 현장에 안전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고, 근로자들도 신성건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20년 넘게 몸담은 신성건설이 대한민국 최고 안전 사업장으로 인정받게 된 것 같아서 정말 큰 영광입니다.”



1% 지시와 99% 확인







지속가능한 무재해,
목표가 아닌 문화로



화재 극복 넘어 안전문화 선도기업으로 도약하다



이 정 도 공장장 _ (주)비츠로셀



리튬전지 제조 공장은 화재 위험이 높은 업종으로 비츠로셀도 그렇다. 2017년 대형 화재를 겪은 후 이정도 공장장은 작업장 분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고 '마이 머신 제도', '안전신문' 발행 등 전 직원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문화를 조성했다. 적극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노력으로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며 동종업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 안전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일차전지를 제조하는 비츠로셀은 공정 특성상 유해화학물질, 고전압 전력설비 등 위험요소가 많다. 특히 전지는 화재와 폭발 위험이 매우 커 선제적인 예방활동 없이는 직원들의 안전과 제품의 신뢰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이런 위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2017년 충남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때문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의 90% 이상이 소실될 정도로 피해가 컸다.

“뼈아픈 경험을 토대로 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춰나갔죠. 우선 불이 빠르게 번져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 모든 작업장을 분리하고 철근 콘크리트 단층으로 지었어. 건물 간 안전거리도 확보하고요. 사고 발생 시 가시성 확보를 위해 형광 피난 유도선과 비상 조명등을 설치하고, 즉시 대피가 필요한 위험 구역도 설정했죠. 실시간으로 사고를 감시할 수 있는 24시간 통합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위험성이 있는 공정도 개선했다. 검사 공정을 자동화하여 ‘샘플 검사’가 아닌 ‘전수 검사’로 전환하고 화재 확산을 막는 난연·개별적재 트레이도 개발했다. 2024년, 이러한 조치들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전기 제조업 화재·폭발사고 안전가이드’에 반영되기도 했다. 이 모든 조치를 뒷받침한 것은 적극적인 투자였다. ‘안전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각오로 2024년에만 매출액 2,107억 원 중 2.35%에 해당하는 49억 원을 안전 분야에 투자했다.



화재 감시를 위해 구축한 24시간 통합 관제소



정전, 화재 시 신속한 피난을 위해 설치된
축광 비상구 유도선

「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무재해를 넘어 더욱 건강한 일터로

“사고를 예방하려면 안전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설비는 내가 지킨다.’라는 모토 아래 ‘마이 머신(My Machine)’ 제도를 도입했죠. 자신이 작동시키는 기기에 고장이나 위험요소가 있으면 관리자에게 즉시 알리게 했는데, 사고 예방은 물론 고장이 줄고 설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어요.”

2019년부터는 매월 15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 관리직 전 직원이 합동 안전점검에 참여하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은 별도로 ‘패트를 점검’을 실시한다. 업무 피로도가 높으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매일 정기적인 스트레칭 방송을 진행해 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있다. 그 밖에도 안전보건경영 시스템(ISO45001) 인증을 받으며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이 공장장은 2022년부터 안전환경팀 직원들과 매월 자체 ‘안전신문’도 발행하고 있다. 회사 안팎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와 예방 조치를 공유하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국가별 맞춤형 안전교육과 모국어로 된 안전정보도 제공하고 중소·영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감사제도’를 도입했다. 매년 실시하는 ‘One Company Forum’에서는 협력업체 대표와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또한 사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안전보건관리자와 관리감독자 간 이견을 조율하고, 관리감독자가 중심이 되는 현장 안전관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 같은 활동 속에서 이 공장장은 안전보건관리 임무가 부여된 11년 6개월 동안 ‘중대재해 0건’을 기록했고, 2024년에는 무재해를 달성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성과는 이 공장장이 이끄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동종 업계 모범사례가 되었다는 점이다. 2024년 6월 경기도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참사 시 정부기관 35개소를 대상으로 24회의 설명회를 주관하여 대책 수립을 지원했고, 2024년 10월에는 고용노동부의 ‘전지 제조 취급업종 화재 폭발사고 대비 안전가이드’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했다.



월 1회 회사에서 자체 발행하는 안전신문



실시간 생산 정보 수집을 위한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시스템

(주)비츠로셀의 산재예방 따라잡기

- ◆ '24년 매출액 2,107억 원의 2.35%인 49억 원을 안전에 투자
- ◆ 사고를 감시할 수 있는 24시간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 ◆ 기기 고장·위험요소 발견 즉시 신고하는 '마이 머신 제도' 도입
- ◆ '22년부터 매월 회사 자체 안전신문 제작(현재 42호 발행)



『안전제일 문화 정착』이 가장 큰 보람

“산재예방 유공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건 늘 현장에서 함께 구호를 외치고 개선 활동을 해 온 구성원들이었어요. 이 상은 제 개인의 상이 아니라 함께 안전을 실천해 온 모든 임직원의 노력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장장은 지금도 관련 서적이나 자료를 학습하며 다양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현장에 적용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전시회와 박람회도 빼놓지 않고 참관하고 있다. 이에 더해 더 큰 목표도 세웠다. 공정 내 고위험 설비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이상 감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안전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안전관리 담당자로서 기억에 남는 순간을 묻는 질문에 이 공장장은 ‘2017년 사고를 수습한 후 회사가 더 크게 도약했을 때’를 꼽았다. 화재를 교훈 삼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장을 새롭게 구축하고 ‘스마트 캠퍼스’라 명명했는데, 이 스마트(Smart)의 의미를 안전(Safe)과 효율(Efficient) 확보로 재정의했다고 회상했다.

“비츠로셀의 핵심가치는 ‘행복한 일터를 향하여’이고, 이 행복한 일터의 최우선 조건은 ‘안전’입니다. 여기서 ‘안전’은 첫 번째는 나의 안전, 두 번째는 동료들의 안전, 그리고 회사 자산의 안전을 의미해요. 이제는 직원 누구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안전’이라고 답할 정도로 안전문화가 정착됐는데, ‘우리 일터의 안전은 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슬로건처럼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일터의 안전은 나의 손에 달려있다



현장이 바꾼 문화, 모두가 만든 안전한 일상



방 창 수 팀장_LG이노텍(주) 구미사업장 광학솔루션구미안전환경팀



LG이노텍의 핵심 생산거점인 구미사업장은 고객사 핵심 전략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첨단공법을 도입하며 집중투자하고 있다.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도 철저하다. 4,400여 명에 이르는 직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방창수 안전환경팀장은 독창적인 위험성평가 시스템과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명실상부 ‘산업재해에서 안전한 사업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5M+1E』로 완성한 현장맞춤형 위험성 평가

LG이노텍의 주력제품은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이다. 고객사의 신제품 출시 일정에 따라 매년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고 레이아웃 공사를 진행한다. 그 과정에서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새로운 작업환경에 적응해야 하기에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AI 스마트 CCTV를 활용한 24시간 방재센터를 운영하며 대응체계를 구축한 것도 그런 이유다.

방창수 팀장이 꼽은 안전관리 시스템의 핵심은 ‘5M+1E’라는 독창적인 위험성평가 방식이다. 기존 4M(Man, Machine, Material, Method)에 Management를 더하고 ‘협력업체의 안전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작업환경(Environment)까지 평가하는 것이다. 위험성평가는 특정 작업이나 공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빈도와 강도를 먼저 평가하는데, 위험성이 8점 이상일 경우 집중관리한다. 위험성평가 시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해 전 임직원이 반드시 참여하는 것도 특징이다.

“위험성평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눈으로 보는 위험성평가 경진대회’인데요. 재해를 예방하려면 구성원 모두가 안전을 살피는 눈, 위험을 보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행사죠. 설비,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제출하면 이를 평가해서 포상하는 참여형 위험성평가 활동인데, 작년의 경우 314명이 참여해서 1,082건을 발굴했어요. 설비 내 틈새에서 끼임 위험을 발견해 틈새 커버를 설치했고, 광전자식방호장치가 적용되지 않은 구간을 확인해 감지영역을 확대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이 사고로 이어질 경우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자체 비상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고 실제 대응훈련도 진행한다. 산업용로봇 운용 작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 85개 부서 중 26개 부서에서 ‘끼임’ 대응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방 팀장은 Daily TBM 자료 및 Safety Message 제공, 회의 시작 전 Safety Talk, 매월 ‘안전의 날’ 운영 등 구성원들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에 공을 들이고 있다.



‘눈으로 보는 위험성평가 경진대회’ 홍보이미지



AI 스마트 CCTV를 활용한 24시간 방재센터

『자율과 참여로 만들어 나가는 ‘살아있는 안전’』

“과거에는 안전관리 업무가 안전관리자만의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사고 등의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일부 관리감독자가 방관자처럼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면서 사고를 막으려면 이들의 안전의식부터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장 안전패트를로나 안전회의를 진행할 때 관리감독자도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자 주관으로 사고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죠. 덕분에 요즘은 관리감독자들이 주도적으로 위험요인들을 찾아내고 아차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습니다.”

방 팀장은 근로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안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아차사고 신고자 포상제도’를 도입했다. 작은 사고나 위험요소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월평균 20~30건 이상 발굴되고 있다. 덕분에 Air Shower Door에 센서를 추가 설치해 감지영역을 개선하고 작업발판의 들림·밀림을 개선하는 방지 가이드도 제작할 수 있었다.

‘안전이 담보되기 전까지는 작업하지 않는다.’라는 철칙이 안착하고 있음을 실감케 하는 대목은 ‘안전보건 BP(Best practice) 제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안전보건 업무수행 중 문제를 파악하여 개선한 사례를 공유하는 제도로, 화학물질 자동 공급장치를 설치해 작업자 노출을 최소화했다거나, 가스 누출 시 메신저 알람기능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그 예다.



관리감독자 교육을 위한 사내 안전체험장(VR 로봇충돌 체험)



2024년 화재안전등급 우수사업장 선정(국가화재평가원)

LG이노텍 구미사업장의 산재예방 따라잡기

- ◆ '5M+1E 위험성평가' 운영으로 협력사 작업환경까지 정밀 진단
- ◆ '눈으로 보는 위험성평가 경진대회'로 전 직원 참여형 안전문화 실현
- ◆ AI 스마트 CCTV 기반 24시간 방재센터 구축으로 실시간 감지·대응
- ◆ 아차사고 포상제도 및 사고위원회 운영으로 자발적 예방활동 강화



이 같은 노력 속에서 2024년 국가화재평가원으로부터 화재안전등급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고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주최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지역 발표대회’에서는 혁신적인 위험성평가 기법을 인정받아 경북 지역 특별상을 받았다. 2023년에는 소방안전관리 실무능력 경진대회에서 3등 상을 받기도 했다.

지속가능한 무재해, 목표 아닌 문화로

“모든 근로자가 걱정 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고위험 작업을 수행하는 협력사들의 안전도 챙기고 있는데요. 위험성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비상조치 훈련 등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정기 세미나도 개최하면서 협력사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안전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 팀장은 최근 협력업체의 안전역량과 안전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에 집중하고 있다. 생산설비에 설치된 안전방호 장치의 실효성을 ‘폴 프루프(Fool Proof, 실수 방지)’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을 ‘세이프티 점프 업(Safety Jump Up, 안전도약)’이라는 슬로건으로 설정하여 국내 사업장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에도 전파·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재예방 유공자 선정 소식을 접하자마자 지난 22년간 선후배, 동료들과 땀 흘려온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이 영광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안전한 일터가 되고 무사고를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무사고가 당연한 현상이 되도록 모든 열정을 쏟겠습니다.”



나는 안전을 위해 타협하지 않는다



빈틈없는 안전관리로 우리 사업장은 오늘도 안전



이창익 생산본부장 (주)선양소주



1973년 설립된 선양소주는 대전 충남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 긴 역사와 정교한 공정, 막대한 설비에 걸맞게 안전관리시스템도 발전시켜 왔다. 이창익 본부장은 산재위험이 높은 소주 제조업 특성에 맞춰 적극적인 시설 투자와 안전작업허가제 시행, 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통해 무재해 사업장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업무의 시작은 문제의식으로부터!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소주 한 병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복잡한 공정을 거치는데, 주류 제조 산업은 생각보다 다양한 산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에탄올 95%)은 인화점이 낮은 가연성 액체로, 취급 부주의 시 화재·폭발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또한 공병 투입부터 제품 포장까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차량계 하역 기계 등이 사용되어 유리병 파손으로 인한 베임, 회전체에 의한 끼임, 장비와의 부딪힘 등 크고 작은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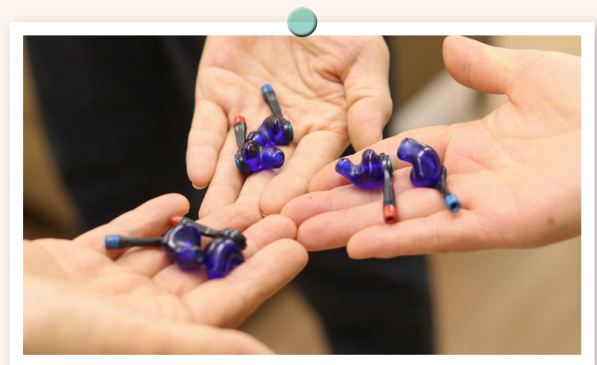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산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전 직원이 ‘업무의 시작은 문제의식으로부터!’라는 슬로건을 뺏속 깊이 새기면서 오감(五感)을 열고 누군가 재해를 유발할 만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닌지 살피고, 사소해 보여도 안전상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깐요.”

이창익 본부장은 2022년 안전보건에 대한 내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건환경팀을 신설했다. 대한산업 안전협회로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고 안전시설에도 과감히 투자했다. 2022년 7월 추락 및 낙하사고 방지 개선공사에 4,500만 원, 2023년 7월에는 1,560만 원을 들여 탱크로리 입하장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했다. 한랭·온랭질환 예방을 위한 간이휴게소 2개소를 설치하고, 생산라인 작업자의 청력을 보호하는 개인 맞춤형 귀마개를 보급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도 챙겼다.

‘안전작업허가서 제도’도 도입했다. 기존 설비나 기기류 점검은 물론, 신설·증설, 유지·보수작업 시 안전책임자인 이 본부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작업허가서가 없으면 아예 정문을 통과조차 할 수 없다. 심지어 이미 허가를 받은 작업도 실시 전·후에 관리감독자 등을 입회시켜 안전을 확인한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내 지게차, 물류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팀에서 불시 음주측정을 하고, 출근과 동시에 정문 관리실에서 셀프로 음주측정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업장 기계·기구, 배관 등에 식별 표시, 유체흐름 표시, 경고 표지를 부착하는 등 V/M(Visual Management, 시각관리기법)을 강화하여 휴먼 에러도 방지하고 있다.



2023년 설치한 탱크로리 입하장 추락방지 시설



작업자의 청력보호를 위해 보급한 개인 맞춤형 귀마개

주인의식과 안전의식은 맞닿아 있다

“매일 안전팀에서 순찰을 돌면서 위험요소를 발굴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전 임직원이 잠재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공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 신고 기능이 주였지만, 지금은 참신한 경영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창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부장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팀의 월간 개선활동을 통해 2024년 108건의 유해 위험요소를 개선했는데, 화재·폭발 등 직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요인도 포함돼 있다. 정기·수시 위험성평가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하고 위험요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유의미한 내용은 즉각 반영한다. 일례로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주정 투입 공정에 작업발판이 설치됐고, 차량 추락방지용 볼라드(말뚝) 설치, 지게차 주행로 노면 개선 등도 직원들의 제안을 토대로 이뤄진 조치들이다.

2013년부터는 대표 제품의 보조상표에 ‘산업안전캠페인’ 관련 홍보문구를 실는 등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했다. 2024년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과 ‘안전문화동행파트너’를 체결하고 올 상반기에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등 60만 병에 캠페인 문구를 부착해 대국민 홍보를 진행했다.



응급상황 대응력 강화를 위한 근로자 대상 CPR 실습 교육



지게차, 물류차량 운전자를 위한
셀프 음주측정기



제품 보조상표에 삽입된
산업안전 캠페인 문구

(주)신양소주의 산재예방 따라잡기

- ◆ '22년 안전보건환경팀 신설 및 탱크로리 입하장 등 고위험 구역에 안전시설 투자
- ◆ '안전작업허가서 제도' 도입(설비 점검, 신설·증설, 유지·보수 작업 전 필수)
- ◆ 정기·수시 위험성평가 시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및 위험요인 개선 반영
- ◆ 대표 제품 보조상표에 '산업안전캠페인' 문구 삽입으로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응급처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그런데 저희는 2020년부터 이미 산업안전 관리자를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 강사로 양성해서 매달 근로자 정기교육 때 CPR 실습을 했어요. 덕분에 2021년 주말 러닝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에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을 발견하고 저하고 직원이 CPR로 생명을 구한 적이 있어요. 2024년에는 우리 직원이 심정지가 온 남편을 교육받은 대로 CPR을 해서 살려내기도 했죠. 그 이후로 직원들 관심과 참여가 더 높아졌어요.”

노후설비 바꾸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파

장학금 기부, 계족산 황톳길 조성, 축제 개최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참여해 온 이 본부장은 요즘 안전 보건관리체계의 고도화에 관심이 쏠려 있다. 이에 내부 인력이 예측하지 못한 위험요인을 검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공정위험평가를 받고 있으며, 도출된 위험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방법을 구상 중이다. 나아가 근로자들의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등 안전보건에 대한 애로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해소하는 현장중심의 안전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처음 유공자 포상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이 영예로운 상을 받을만한가?’ 자문하게 되더군요. 하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상은 제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십 수년간 현장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애써온 직원들 모두가 받는 것이라고요. 마침, 올해 입사 30주년을 맞았는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돼서 뿌듯합니다. 이 뜻깊은 상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산재예방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리회사 슬로건

(주) 신양소주

사람과 사람 사이, 안전으로 행복한 미래를 잇다





스마트한 실천,
함께 만드는 안전문화

고위험 작업 속 현장 지킨 뚝심의 리더십



이 학 문 팀장 OCI(주) 익산공장 SHE팀

과산화수소 등 정밀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OCI 익산공장은 인화성 물질을 다뤄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위험 사업장이다. 16년간 OCI에 몸담아 온 이학문 팀장은 ‘세이프티 버튼’이라 불릴 만큼 안전에 철두철미하다. ‘안전이 생활이 돼야 한다.’라는 신념 아래 화재·폭발 우려 작업에 안전작업허가제를 도입하고, 위험성 평가·TBM 이행을 허가요건으로 내걸었다. 위험성평가와 아차사고 분석으로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고압절연 구조호크·휴대용 산소캔 등 보호시설과 보호구 설치에도 적극적이다.

고령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협력업체 근로자 등 취약계층 관리에도 집중했다. 협력업체 소속 고령근로자, 운송차량 운전자, 건설기계조종자 대상 특별 안전보건교육과 캠페인을 벌이고, 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해 그림·기호 안전표지판을 제작해 작업별 위험요인을 쉽게 전달했다. 현장 소음으로 인한 지게차 충돌·끼임사고를 막기 위해 인체감지 카메라, 레이저빔, 출입센서 등 스마트 안전장비도 설치했다.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이행교육과 현장순찰을 지원하고, 매월 노조위원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과 안전 순찰도 한다. OCI의 위험성평가 방법과 사고예방 우수사례를 소규모 동종업체와 공유하고, 안전기술 교류 및 교육을 위한 회의체를 열어 소규모업체 관리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도 제공했다. 고위험 작업 현장이기에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그는 취약계층 보호, 스마트 장비 도입, 협력사 지원 등으로 안전을 현장문화로 정착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OCI 주식회사

기회, 도전, 변화라는 핵심 가치 실현

작업 전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속도 조절의 달인



사 종 식 주임 (주)현대엘앤씨 칸스톤P&D팀

현대엘앤씨는 칸스톤 및 창호, 바닥재 등 건축자재를 생산하며 주거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이다. 건축자재 제조 현장은 화재, 폭발, 누출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다.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하며 12년간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맡아온 사종식 주임은,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활동을 정착시키고, 화재사고 예방과 노사 합동의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서 온 공로를 높이 평가 받았다.

사 주임은 협력업체와 ‘정기 안전순찰’과 ‘작업반별 위험성평가 결과 리뷰 워크숍’을 주관하며 유해·위험요인 발굴과 개선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장소에는 위험내용과 안전조치 사항을 담은 자체 제작 안전보건 표지판을 부착하고, 부서별·작업조별로 마련된 안전조치 사항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아울러 위험성평가와 안전순찰 결과를 분석해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피해 정도를 평가한 뒤 안전 사고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불꽃감지기를 비롯한 화재 감지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총 4억여 원 규모의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등 계절별 특화 위험요소를 반영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붕괴·감전·화재 등을 예방하는 특별점검반도 운영 중이다. 안전문화 확산에도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사 주임은 전 부서와 공정별 작업조, 협력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하며 모범적인 안전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사람이 머무는 공간, 집도 일터도 안전이 먼저입니다

스마트 기술에 협력과 배려를 더해 안전을 지킨다



임 병 석 부장_우미건설(주) 김포북변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주택브랜드 ‘린’으로 친숙한 우미건설은 지난 7년간 중대재해 제로를 지켜왔다. 23년간 안전관리 업무를 맡아온 임병석 부장은 건설업의 중대재해 사례와 우미건설의 위험성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향타기, 타워크레인, 굴착기 등 고위험 건설기계·장비의 위험요인을 선별하고, 현장반입 및 사용 전 외부전문가와 반드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위험공구는 매월 2회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잠재적 사고 위험 또한 줄였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전확보에도 힘썼다. 타워크레인 설치 후와 운행 전의 위험여부를 드론으로 확인하고 굴착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 고위험 기계·장비에 인체감지 시스템을 적용, 부딪힘·끼임 사고를 예방했다. 협력업체에는 떨어짐 사고 위험이 큰 A형 사다리작업 대신 이동식 비계나 말비계 등 대체 작업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설치를 독려했다. 운송업체 자재 상·하차 작업 시 이동식 안전계단 설치 지원, 창호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대행 등 협력업체의 안전역량 강화도 지원했다.

또한 혹서기에 음료를 아이스박스에 넣어 근로자를 찾아가 독려하고 성별 분리 휴게시설 및 ‘린카페’ 운영, 월 1회 고령근로자 건강상태 점검 등 감성안전 활동을 펼쳤다. 타워크레인 운전원과 신호수처럼 소속 회사가 다른 구성원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열어 신호체계도 다져나갔다. 2022년 KOSHA-MS 인증 취득을 중요한 성과로 꼽는 임 부장은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을 위해 챗GPT 번역시스템으로 아침조회는 물론, 교육, 지적 사항을 전달하여 시정조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우린 단단하게 그린 안전 위에, 우미린을 짓습니다

꾸준한 투자·실천으로 안전표준을 완성하다



심재범 팀장_넥센타이어(주) SHE기획팀

안전업무를 맡아온 심재범 팀장은 안전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현장맞춤형 교육 강화에 집중해 왔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난간대와 수직사다리 개선에 9.2억 원, 넘어짐·부딪힘·끼임 재해 예방에는 21.5억 원을 투입하며 안전수준을 높였다. 관리감독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사업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취약부문과 현장 요구도를 분석,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운영하고 교육 후 현업에 적용 되도록 교육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심 팀장은 산재 복귀자를 위한 적응지원 프로그램과 산재 트라우마 해소 상담제도, 직업병 예방을 위한 전문 물리치료사 배치 등을 추진해 5년 연속 ‘근로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인증도 받았다. 근로자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제로베이스 정기 위험성평가 도입과 함께 전 직원이 참여하는 ‘숨은 위험을 찾아라’ 캠페인도 운영 중이다.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안전규정 위반자를 위한 안전학교 운영, 우수부서 포상제와 무재해 격려금 지급 등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여왔으며, 신규설비 도입이나 작업 방식 변경 시에는 반드시 노사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잠재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이러한 선제적 투자와 촘촘한 예방 활동을 통해 넥센타이어는 최근 10년간 중대재해 제로를 유지하고 있다.



NEXEN 넥센타이어

안전을 위한 움직임, 넥센타이어

산재 예방의 열쇠는 경영진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황 순 용 대표이사_평화산업(주)

평화산업(주)은 자동차 소음·진동 저감(NVH: Noise, Vibration, Harshness) 부품 분야에서 75년간 기술 표준을 선도해 온 중견기업이다. 평화산업을 이끌어온 황순용 대표이사는, 산업재해는 단지 재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동료, 나아가 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일이라는 인식 아래, 최고경영자의 책임감이 안전의 출발점이라 강조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함께 잘 살아보자.’는 사훈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노사 공동으로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수립·선포하고, 관련 규정과 프로세스를 재정비했다. 전담조직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신입사원 안전체험 교육장 운영과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영상 제작 등 실천 중심의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안전보건 캠페인, 가족참여형 포스터·표어 공모전, 보건소 연계 건강증진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을 조직 문화로 뿌리내리며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안전관리로, 안전 컨설팅과 위험성평가 인증 지원,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다국어 교육자료 제공 등을 병행하고 있으며, 지능형 안전관리시스템(AISS)과 웨어러블 장비 도입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 감지하고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스마트 안전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황 대표는 사람 중심의 안전 문화와 기술 기반의 선제적 대응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무재해 일터가 실현되며, 이는 곧 기업의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손으로는 안전점검 눈으로는 안전확인



**습관이 만든 변화,
모두가 안심하는 일터**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안전’에서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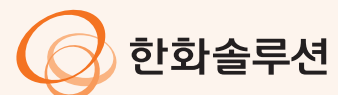


장 상 무 공장장_한화솔루션(주) 울산사업장

기초 석유화학 제품부터 친환경 제품까지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 울산사업장은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사업장으로서 법적 기준을 뛰어넘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장상무 공장장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안전보건 관련 시설 개선에 352억 원, 안전진단 및 컨설팅에 35.8억 원, 안전문화 제고에 3.7억 원을 투자했다. 과감한 투자와 체계적인 관리는 1, 2, 3공장 모두 PSM 평가에서 지속적인 P등급 유지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다. 산재예방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인식 아래, 근로자가 안전의 주체가 되어 위험성평가, 안전조치 이행, 위험요소 공유를 일상화하도록 TBM 활동을 실질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정착시켰다. 또한 AI 영상분석 기능을 활용한 스마트 방재시스템으로 화재, 유해가스 누출 등 주요 위험상황을 조기에 탐지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협력업체와의 동반 안전문화 성장도 추진 중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과 공생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해 맞춤형 컨설팅과 협의체 운영으로 협력사 안전역량을 높였다. 중소·영세업체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PSM 맞춤형 매칭 컨설팅사업’에도 멘토로 참여해 2024년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다. 그는 안전의 중심에 ‘사람’과 ‘공감’이 있으며, 구성원이 ‘심리적 안전감’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안전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화솔루션, 안전으로 미래를 잇다

안전은 습관으로, 예방은 문화로



신 석 호 매니저_엘에스일렉트릭(주) 청주사업장 안전환경팀

엘에스일렉트릭 청주사업장은 전력·자동화 핵심 제품의 생산기지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곳이다. 24년간 안전 외길을 걸어온 신석호 매니저에게 확고한 철학은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며, 모든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신 매니저는 안전을 현장 곳곳에 스며들게 했다. 누구든 안전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를 간소화하고 타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담당자가 참고할 실무매뉴얼과 내부 직원용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직원 교육 시 활용하도록 했다.

위험성평가 책임자로서 임직원과 협력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2024년의 경우 766건에 이르는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했으며, 제품 인양 시 탈락을 방지하는 전용 줄걸이 방법을 고안해 실제 적용하기도 했다. VR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도입하여 직원들이 실제 사고상황을 간접 경험하면서 예방 및 대처 능력을 높이는 기회도 마련했다.

안전슬로건 공모전, 안전골든벨 등을 개최하고 협력사를 포함, 안전에 대한 경영진의 마인드를 강화하는 교육도 진행했다. 협력업체의 안전수준을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은 컨설팅을 제공하며 안전역량 강화를 돕고 있다.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낸 ‘안전신문고’ 앱 구축은 중요한 공적으로 꼽힌다. 현장의 위험을 사진, 영상으로 빠르게 신고할 수 있게 했고 신고자 전원을 포상하여 참여와 문제 해결의 속도를 동시에 높였다. ‘사고 제로’를 향한 신 매니저의 노력은 안전한 일터로 만드는 든든한 기둥이 되고 있다.



**인권이 담보되지 않은 QCD(품질, 비용, 납기)는
무의미하며, 안전관리 없이 작업도 없다**

따뜻한 감성으로 만든 안전한 일터



김창곤 안전관리자_HL D&I 한라 안전보건팀

HL D&I 한라는 건설업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획득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회사가 가장 깊이 고민한 과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관리였다.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는 안전관리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0년간 안전업무를 맡아온 김창곤 팀장은 ‘감성안전’이라는 방식으로 풀어냈다. 나라별 요리 경연대회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 전용 주방을 마련해 함께 요리하고 음식을 나누는 기회를 만들었다. 그 결과, 다툼이 줄고 서로의 안전까지 챙기는 현장 분위기로 이어졌다.

외국인 근로자 중 안전리더를 선발해 TBM과 교육 시 통역을 맡기고, 17개 언어로 제공되는 재난대응 교육 앱도 도입했다. 현장 곳곳에는 다국어 안전 계몽 간판을 설치해 언어장벽으로 인해 중요한 안전정보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매월 안전의 날 행사 때 국적과 관계없이 우수근로자를 포상하는 등 사기진작에도 힘썼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2022년에는 주한 태국 대사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근로자가 현장의 위험요소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위험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험성평가에 적극 참여한 협력업체와 근로자를 위한 포상제도도 시행 중이다. 고령 근로자의 작업 전 혈압측정과 건강상담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8년째 철인 3종 경기를 이어오며 ‘아이언맨’이라 불릴 만큼 강한 체력과 열정으로 현장의 안전을 지켜온 김창곤 팀장은 ‘모든 근로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하는 환경이 곧 안전 수준을 끌어올린다.’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현장을 누비고 있다.



HL 디앤아이한라

안전보건, 모두의 실천이 이제는 실력으로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살핀다



김장수 실장 (주)벅스코 안전지원실

벅스코는 부산을 대표하는 전시·컨벤션센터로 국제회의, 대규모 박람회,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연중무휴 개최된다. 전시산업 특성상 인파 밀집은 물론 구조물 설치·해체, 전기 및 기계장비 이동, 중량물 취급 등 고위험 작업이 빈번해 잠재적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이곳에서 21년 넘게 근무하며 안전보건을 담당해 온 김장수 실장은 주 1회 사업주 순회점검과 분기 1회 협력업체와의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일반적인 산재예방을 넘어, 벅스코만의 맞춤형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왔다.

2021년 출입통제 시스템과 화재 이상 통보 서비스를 연동하여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출입문이 열리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2024년에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불꽃감지 지능형 CCTV를 도입했다. 군중 밀집과 압사 사고 위험이 큰 구간에 CCTV 36대를 추가 설치하고, 실시간 밀집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했다. 에스컬레이터 16곳에 안전발자국 발판 표시를 도입해 이용자들의 안전의식도 높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을 6년 연속 유지 중이며, 전시컨벤션센터 최초로 ‘업무연속성경영시스템(ISO 22301)’ 인증도 받았다. 걷기를 좋아해 점심시간마다 산책 겸 현장을 돌며 위험 요소를 살핀다는 김 실장은 ‘걸어다니는 안전 요정’이라고 불릴 만큼 작은 징후도 놓치지 않는다. 올해 초 ‘위기상황 매뉴얼’을 전면 개정한 김 실장은 전기차 화재, 군중 밀집, 테러 등 변화하는 재난유형을 반영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매뉴얼을 주기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bexco

고객의 점을 실현하는, 안전한 글로벌 MICE 플랫폼

산업용로봇 제조공정의 안전기준 만들기



이 중 남 부장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인증부

(사)대한산업안전협회는 안전인증·검사, 교육, 컨설팅 등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산과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종합안전전문기관이다. 이중남 부장은 ‘기계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원칙 아래, 18년간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등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설계 및 성능 검증업무를 맡아 왔다. 현재는 안전인증 분야의 품질책임자로서 전국 26개 지역의 정부 위탁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협회가 2년 연속(2023~2024) 안전 인증기관 평가 S등급을 획득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로봇시스템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단계부터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충돌방지조치의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KISA 제품인증제도’를 개발·보급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산업용 로봇 제조공정의 자동화·대형화로 기존 안전기준 적용이 어려웠던 사업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2023년에는 ‘KOLAS(한국인정기구)’로부터 공인받아 제도의 공신력과 기관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매년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국제안전보건전시회(KISS)’에서 부스를 운영하며, 안전세미나 등을 통해 최신 안전기법을 전파하고 있는 이 부장은 산업안전보건 표준 제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기술지원규정 등 39건을 자문·심의했다. 한국로봇산업협회 등 로봇 전문기관과 협력하며 정보 공유, 방호장치 점검, 기술교류 등의 활동도 펼치고 있으며 ‘KISA 제품인증 제도’를 고도화하여 현장의 실효성과 최신 기술을 반영한 산재예방 도구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매진하고 있다.



Safety is First, KISA is Best

안전의 시작은 위험을 ‘보는 것’, ‘아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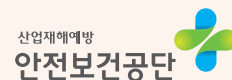


문 병 두 실장_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5년간 근무한 문병두 실장은 해양플랜트 제작 관련 업무 중 추락재해를 입은 작업자를 목격한 후 산재예방의 중요성을 절감하며 산업안전 분야에 뛰어들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 재해처벌법 이행을 지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의 품질 제고를 위해 컨설턴트 역량강화와 사업 평가지표 고도화를 추진했고, 2만 5천 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편·부정신고센터 운영 및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이끌었다.

50인 미만 사업장 83.7만 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 사업을 총괄, 온라인 접속 79만 건, 자가진단 완료 37.2만 건, 교육·컨설팅 등 지원 신청 8만 6천 개소라는 성과를 냈다. 근로자 참여 중심의 위험성평가 시스템(KRAS2.0)을 고도화하여 2025년 1월 대국민 서비스도 시작했다. 중상해 고위험요인(SIF) 아카이브 및 인포그래픽을 개발·보급하고, 위험성평가 키트 1만 개를 제작·보급하여 현장 접근성을 높였다.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지역·현장 중심으로 확대 운영한 결과, 참여사업장이 '23년 31개소에서 '24년 376개소로 증가하며 위험성평가 활성화와 저변확대에도 기여했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기획·런칭하여 사업 첫해에 모기업 331개소, 협력업체 3,873개소가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위험을 보는 것’, ‘아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는 문 실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과정 개편과 AI, 스마트 안전보건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부응하는 전문 교육과정 신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



지켜진 안전, 뿌리진 일 처리, 높아진 성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현장에서 답을 찾은 작업환경측정의 살아있는 전문가



이 동 학 대표_경기산업보건센터(주)

1989년 산업보건 분야에 첫발을 들인 이래 35년간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이동학 대표는 작업 환경측정 전문가이자 우리나라 산업보건 발전에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도 사업장과 건설현장의 보건관리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한 ‘산업보건관리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여 전국에 무상 보급했고, 건설현장 보건관리자를 위한 ‘보건관리 업무매뉴얼’도 제작, 무상으로 배포했다.

화학물질 노출 위험이 큰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질적인 개선도 이끌었다. 노출량이 높거나 급격히 증가한 50개소 이상의 사업장을 찾아 국소배기 설비 개선 등 작업환경 개선을 지도하고 작업환경측정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측정기관들이 유해 물질 정보를 쉽게 찾도록 화학물질 정보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 무상으로 보급 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으로 경기산업보건센터는 고용노동부 기관 평가 7회 연속 우수등급(S 등급)을 유지했고, 측정 사업장의 직업병 이환율이 매년 10% 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지식 공유와 협업에도 적극적인 이 대표는 산업보건학회에 ‘산업보건 금속류 분석에 관한 연구’ 논문 발표와 함께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높여 3명의 산업위생관리기술사도 배출했다. 경기북부근로자건강센터 운영위원 참여와 관련 교육 제공으로 지역 사회와의 협력도 이어온 이 대표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에 집중할 계획이다.



직업병 예방의 시작은 작업환경측정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연번	소속	직위	성명
1	삼성바이오로직스(주)	부사장	노균
2	동국제강(주) 당진공장	부장	김혁
3	신신이앤씨(주)	팀장	백준성
4	이순산업(주)	차장	문광식
5	에스엘(주) 천안공장	공장장	이용우
6	롯데쇼핑(주) 롯데백화점 본사	팀장	최민구
7	(주)한독 음성공장	팀장	김학진
8	두산건설(주) / 천안용곡 두산위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부장	김백호
9	신세계건설(주) / 신세계강남점리뉴얼공사(면세 / 파미에)	부장	허민기
10	로알캐닌코리아유한회사 김제공장	공장장	피차산 웻차킷
11	(주)진주고려병원산업보건센터	대표이사	최우호
12	지에스건설(주) / 대명3동 뉴타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책임	박재완
13	(주)신풍시스템	대표이사	서정후
14	SK플라즈마(주)	매니저	최장우
15	(주)녹십자아이엠	부장	박승혁
16	(주)포웰	대표이사	백용해
17	(주)금도건설	대표이사	문창
18	비엔스틸라(주) 녹산공장	이사	서오교
19	중부재해예방관리원(주)	대표이사	전원혁
20	(주)농협사료 경북지사	지사장	이종일
21	(주)태왕이앤씨 / 낙산비치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	이사	이복훈
22	영신퀵츠(주)	대표이사	이치완
23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지역본부	차장	김정은
24	(주)화성개발	부장	정대석

연번	소속	직위	성명
25	페이퍼코리아㈜	부장	이귀남
26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	차장	한원석
27	일성건설㈜ / 익산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서수-평창1) 건설공사	부장	문경식
28	삼성물산㈜	프로	황문영
29	한국에이에스케이케미칼즈㈜	부장	박상수
30	(주)건화이엔지	팀장	박인희
31	풀무원샘물㈜	팀장	최태용
32	에스디플렉스㈜	프로	김대원
33	(주)원익아이피에스	과장	최준수
34	(주)대광건영 / 구미국가산단 하이테크밸리A-10BL 대광로제비양 신축공사	부장	김춘욱
3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실장	박정재
36	금호건설㈜ / 성남복정1A-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현장소장	고민재
37	산업안전기술인증지원본부(주)	이사	임광목
38	롯데웰푸드(주) 양산공장	상무이사	이석렬
39	(사)대한산업안전협회 경남동부지회	부장	홍종영
40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수석	최기영
41	(주)금성백조주택	부장	이수철
42	(사)대한산업보건협회 강원센터	차장	김기문
43	쌍용씨앤이(주) 영월공장	기장	이길호
44	한국수산자원공단	대리	김호수
45	주식회사 에스알	주임	조예서
46	지평토건(주) /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부장	김재성
47	한국어촌어항공단 동남해지사	대리	이기원
48	한국기술안전(주)	대표이사	이주형
49	신세계건설(주) / 제2매립장(1단계)조성사업 건설공사	부장	최영기
50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팀장	안동구

연번	소속	직위	성명
51	대한송유관공사 영남지사	지사장	김병도
5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부장	정희재
53	(주)반도건설 / 부산 동래구 낙민동 반도유보라 공동주택 신축공사	부장	송성우
54	경인산업	대표이사	장정모
55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충북지회	차장	변상훈
56	(주)진에어	팀장	김경범
5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팀장	김효규
58	경창산업(주) 성서공장	부사장	김정석
59	한국수력원자력(주)	부장	양환식
60	에스티종합안전(주)	대표이사	배길원
61	(주)태영건설 / 동탄2 신도시 A107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책임	김용진
62	피에이치에이(주)	팀장	조남균
63	인천국제공항공사	과장	최미경
64	(사)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세종지역본부	국장	우승현
65	모트라스 화성공장	팀장	최성일
66	신세계건설(주) / 부산 명지지구 오피스텔 1,6 BL/2,5 BL 신축공사	안전보건팀장	최민영
67	(주)한국건설안전연구원	대표이사	조윤희
68	(주)신우	대표이사	고강희
69	(사)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남부지역본부	차장	조혜림
70	(주)트리엔	부장	배상호
71	(주)미래안전기술원	대표이사	손용수
72	삼성물산(주) / 반포3주구 재건축현장	현장소장	김구영
73	제임스안전지도사 종합사무소	대표	최임수
74	(주)동원에프앤비 수원공장	부장	권오근
75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	차장	김계현
76	전남개발공사	사장	장충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77	쌍용건설(주) / 부산북항 재개발사업 배후도로 건설공사	현장소장	안재희
78	에스케이레조낙(주)	프로	이철호
79	(사)대한산업안전협회 부산지역본부	차장	박경애
80	(주)풍산 울산사업장	차장	이용근
81	더안전기술단(주)	대표이사	권대환
82	(주)케이씨씨건설 / 고속국도 제400호선 김포~파주간 건설공사(제3공구)	차장	안덕재
83	한국남동발전(주)	차장	이지원
8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부장	김성익
85	에프디씨(주)	이사	김정훈
86	한국보건안전연구소(주)	대표이사	박현아
87	(주)피엔티삼일산업	대표이사	권성오
88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통영기지지사	지사장	김수겸
89	(주)오미아코리아 함백공장	공장장	이삼우
90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성남지회	차장	최은식
91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	대리	송은찬
92	(주)대한안전기술원	이사	김규영
93	한국환경공단	대리	이종석
94	(주)카길애그리퓨리나 군산공장	이사	이규태
95	삼성이엔에이(주) / 기흥전자 NRD-K 대기 신축공사	현장소장	박상윤
96	(주)중앙안전보건연구원	대표이사	이규동
97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차장	이용문
98	(주)경청클린	이사	김희준
99	일심정밀화학	대표	임호
100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충남북부지회	과장	정성민

안전한 일터 모두의 행복

2025 산업재해 예방
유공자 우수사례집

안전현장의 영웅들



발 행 일 2025년 7월
발 행 처 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홍보실
주 행 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전 행 화 052-703-0725
취재 및 제작 초이스컴(주) TEL. 070-4245-9599

* 이 책자는 안전보건공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정, 편집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다른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를 금하며, 자료 내용은 안전관리 업무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참고자료로 업무상 이익제기 등 소명자료로서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